

## 대신총회를 회복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복원 총회개최

| 신임 총회장에 강대석 목사(청운교회), 부총회장 김희철 목사(송도가나안교회)를 추대선출  
| 오는 11월 18일(월) 속회, 조직, 정책등 완료



▲ 제49회기 총회장 전광훈목사

[10월 17일. 복원 총회 1일차]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복원 총회를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하고 신임 총회장에 강대석 목사(청운교회)를 추대 선출했다. 이날 156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대신 총회장인 전광훈 목사는 겔 '무덤에서 나와 큰 군대를 이루라' 제목의 설교에서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대대적인 영적 싸움을 위해 10월 25일 광화문으로 집결할 것을 강경하게 호소하고 "광장으로 모든 성도를 동원하라"며, 총동원령을 내렸다.

또한 대신의 정신적 뿌리는 김치선 목사님을 강조하고 위대한 설립자 김치선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땅 끝까지 선교를 지향하는 총회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한국교회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며, 하나님께 내 손에 대한민국을 갖다 놔다. 하나님의 성령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을 운명하신 걸 봤다"고 말했다. 또한 "대신은 노회중심의 발전해 나가



▲ 제50회기 총회장 강대석목사

아하며, 총회는 강도사 고시정도만 말아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총회의 제한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대신교단의 권리는 내게 있다"고 주장하고 교단분열에 대해서는 "교단이 분열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총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내사 실수해서 대신을 복원해야 역사 앞에 당당하다고 생각해 복원 총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개회예배는 박근상 목사(준비위원장) 사회로 전광훈 목사의 설교에 이어 홍황표 목사가 특별찬양을, 김요셉 목사의 격려사를, 강경원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 선출된 강대석 목사는 "교단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열됐다"라며, "대신을 하나로 묶고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 총회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예장(대신) 복구총회는 총회장을 선출한 후 정회를 했다.

[10월 18일. 복원 총회 2일차]

오전 10시에 속회한 예장(대신) 복구 총회는 신임 총회장인 강대석 목사가 인도했다. 강대석 신임 총회장은 추대로 임원

을 선출했다. 추대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부총회장: 김희철 목사(서경노회 송도가나안교회). △서기: 김종우 목사. △사무국장: 이성재 목사. 부총회장으로 추대 선출된 김희철 목사는 "후배들을 위해 일어나야한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강대석 신임총회장은 총회사무실을 청파중앙교회에 두고 활동하기로 하고 이어 박근상 목사를 '명예증경총회장'으로 추대했으나, 헌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대한예수교장로회에 명예증경총회장은 전례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한달 뒤 속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강 총회장은 교단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하자 여러 의견을 나왔다.

주요 의견으로 L목사는 "법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원칙과 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또 하나의 교단이 아닌 법적 정통을 가지는데 총회가 매진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고 또한 몇몇 사람에게 의해 교단이 독선적으로 나가는 것에 우려된다. 집행부를 구성해서 교단을 견제하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인지

묻고 싶다" 강 총회장은 답변으로 "당연히 법적 정통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 총회가 이끌어가는 교단이 아닌 노회중심의 교단을 만들어 가야한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K목사는 "고시부 재정부등 기본 행정적 요소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 노회나 교회가 이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면서 "대신이 분열된 것은 재정적 문제다. 그래서 노회정치로 가자는 노선이 정해졌다. 기본을 갖추어 안정과 신뢰,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총회장은 답변으로 "한 달간 열심히 준비하겠다"

S목사는 "큰 교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추구하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S목사는 "대신의 분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회개하면서 순종해야 한다. 인원이 적어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J목사는 "노회가 무너졌다. 필요하다면 노회를 통합하고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25일 금요일 철야기도회에 대신교단 참여를 결의하고 강 총회장은 "희망을 가져야 한다. 김치선 목사를 살리려면 우리가 복원해야 할 수 있다. 총회장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11월 18일에 총회를 속회하겠다"고 선언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신교회협동신문 우인식기자

## HOLY 경기도,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

| 지난 20일 경기도청 앞, 1만명 성도들 모여 기도



▲이날 기도회에선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예장 합동 부총회장)가 설교했다. ©경기총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20일 오후 경기도청 앞 녹지대 및 도로에서 약 1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HOLY 경기도,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창조질서를 대적하고, 건강한 사회의 윤리를 파괴하며,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월권적으로 침해하는 전국 최악의 조례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만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는데, 박옥분 경기도의원과 도의원이 언급한 대로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 즉 수십 가지 젠더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조별로 만들고 법제화한 것이 바로 우리 도민들이 경악하고 있는 동성애 옹호 나쁜 성평등 조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7월 16일 개정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2009년에 첫 등장 하였지만, 2015년과 2019년에 박옥분 도의원이 1차, 2차에 걸쳐 더 악한 조례로 만들어 도민들을 강압하고 있다"며 "2015년 1차 개정에서 도청에 동성애 옹호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2019년 2차 개정에서는 더 나아가 그 성평등위원회를 경기도 소재 모든 교회와 신학교,

선교원, 기독교 학교, 선교단체, 기독교 기업과 사회단체에까지 설치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성평등위원회로 인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는 강요를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조장하는 인권교육을 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설교와 교육을 하지 말라고 강요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욱 참담한 조례의 악영향은 우리 자녀들이 교육의 지각을 깨우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올바른 윤리교육을 받아야 할 10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옹호·조장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성교육을 시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옥분 도의원과 도의원들은 즉시 사퇴할 것 △조례 명을 포함하여 '성평등' 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할 것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할 것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교회협동신문 우인식기자

## 제50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속회공고

존경하는 대신인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받은 상처가 많을지라도,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정식으로 열리는 대신 50회 총회에 참석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회복총회의 특성상 특별한 총대원을 지정하지 않고, 대신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여 우리가 추구했던 김치선을 살려내고, 대신을 다시 결집시켜 예수한국, 복음통일, 땅끝선교라는 역사적 사명을 우리 대신교단이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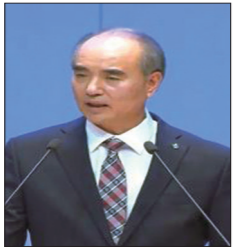
일시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11시

장소 청파중앙교회 (김향우목사)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3번길 58 02 714-0041~3



# 백석대신총회 제1차 실행위원회

## | 지난 24일 수원명성교회에서, 헌법개수정위원회, 권징, 서기보고등 다양한 의견 나와



유만석 목사  
백석대신총회장



▲ 백석대신총회 제1차 실행위원회가 수원명성교회에서 열렸다

지난 9월 19일 설립된 예정백석대신(총회장 유만석 목사) 총회는 24일 수원명성교회(담임목사 유만석)에서 68명의 실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행위는 교단의 기준과 근거를 세우는 작업에 있어 총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고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교단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

### 목회자 정년

이번 관심이 집중된 것은 목회자 정년 문제에 대한 건이었다. 헌법규칙전면개정위원회가 목회자 정년 문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 △정년은 70세로 하되 각 교회가 공동의회를 거쳐서 연장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한 안 △무제한으로 정년 연장 가능한 안 등이 나왔지만 유만석 총회장은 총회원이 다른 제 3의 의견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토론해 보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목회자 정년과 관련해 L장로는 "정말 실력 있는 목회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은혜가 안 되고 힘들다. 목사님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가 많다. 성도들과 대화해보니 70세 은퇴가 적당하다. 우리 교단은 개혁적인 장로교 정치를 표방하는 곳이니 정년 문제에 있어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헌법개수정위원회가 연구한대로 정년은 70세로 하되 교회가 원하면 5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과하게 하면 개혁정신이 흐려

지고 본 교단 설립도 어렵다"고 했다. 다른 총회원은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깔끔하게 70세까지 하고 물러나게 하자"고 했고, 또 다른 총회원은 "70세를 넘기면 노회나 총회에서 직책을 맡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정년에 대한 반론도 많이 나왔다. 한 총회원은 "백석 교단이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했는데 우리 교단이 정년을 70세로 하면 백석에서 이쪽으로 오려고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K목사는 질충안을 냈다. "노회, 총회의 헌법보다 개교회 정년이 우선이니 정년 문제는 개교회 재량에 맡기고 총회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만 정하자"고 했다.

유만석 총회장은 임금피크제를 제안했다. 유 총회장은 "정년은 70세로 하되 공동의회를 거쳐 75세로 늘릴 수 있게 하고, 70세가 넘으면 사려비를 50%로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교회도 부담이 덜 된다"고 했다.

논의 결과 정년 안건은 제시된 여러 안을 헌법규칙전면개정위원회와 임원회가 정리해 11월 4일 열리는 총회에 상정한 후 총회 현장에서 각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총회 대의원, 권징

이날 '총회 헌법과 규칙 전면 개정 보고'에 따르면 총대는 7당회 혹은 4교회당 1명을 파송할 수 있도록 했고, 노회 조직은 7당회 혹은 30교회를 기준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정했다.

백석대신 총회는 총회장 탄핵조항을 만들었고, 인지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목회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가 바로 할 수 없고 노회에서 하도록 하는 권징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총회 슬림화

또한 백석대신 총회는 총회를 슬림화할 것도 밝혔다. 총회 서기 류기성 목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백석대신 총회는 14개 위원회에서 163명의 상임위원이 참여해 활동할 것이라고 한다.

총회재판국은 상설기구로 하지 않고 고소 사건이 들어올 때마다 재판국을 신설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회를 15개씩 묶어 여기서 파송한 인사를 재판국원으로 임명해 15명으로 구성된 재판국을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총회로 접수된 각 사건마다 재판국을 별도로 구성해 처리한다고 했다.

### 신학교

이날 총회 상황보고에 의하면 백석대신 총회는 예정고신 교단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과 인준관계를 맺는 것을 추진 중이다.

서기 류기성 목사의 말에 따르면 대략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진행된 상태고 추후 양 교단의 총회장이 만나 정식으로 인준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와도 인준

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나 합신대의 경우 예정대신 수호 측과 교류하고 있어 뜻을 접었다고 한다.

### 총회 법인

총회 법인 설립의 경우 사단법인 설립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 보통 10일 이내에 승인이 난다. 류기성 목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등록해 총회원들에게 소속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며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 총회 참가교회

한편 실행위에서 백석대신 교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구 대신 측에서 약 600명~650명 정도의 목회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 백석 측에서는 수 원노회를 중심으로 새부산노회, 부산노회 등 최소 350명에서 500명의 목회자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백석대신 측은 11월 4일 열리는 총회 속회 시 약1천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 중이다.

유만석 목사는 "구 백석교단에서 통째로 넘어오는 노회가 6개 정도 된다. 그리고 다른 노회에서도 10명~20명 씩 목회자들이 별도로 합류할 예정이다. 정확한 데이터는 총회가 끝나고 집계될 것"이라며 "다른 총회는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허수를 제외하고 정직하게 총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교회, 세계의 '변두리' 아닌 '센터처치' 되어야'

### 21C목회연구소, '2020 목회계획 컨퍼런스' 개최



▲ 21C 목회연구소장 김두현 목사

21C목회연구소(소장 김두현 목사)가 10일 경기도 용인 새이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한국교회 미래 10년 교회세움&새 교회세움'이라는 주제로 '2020 목회계획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주강사로 나선 김두현 목사는 21세기 새로운 교회의 패러다임인 '교회세움', 즉 처치플랜팅(Church Planting)에 대해 강조했다. 김 목사는 "처치플랜팅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교회 세우기 운동"이라며 "이미 30여년 가까이 팀 켈러(Tim Keller) 목사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일어나 세계 곳곳으로 확장

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처치플랜팅의 핵심 개념은 '사도행전 29'(Acts 29)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 김 목사는 "'Acts 29'는 성경의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났으니 29장을 이어 쓰자는 것"이라기보다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는 성경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오늘날 교회들이 재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약 100만 개에 가까운 교회들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도행전 29'이며, 이런 정신을 공유하는 교회들이 이른바 '센터 처치'(Center Church)가 되어 '사도행전 29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5만여 한국교회는 이런 흐름에서 따로 떨어져 '변두리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들어가 '센터처치'가 돼야 한다는 게 김 목사의 주장이다.

**대신 김치선 신학교 온라인 글로벌 스마트캠퍼스**  
교수와 이사님을 모십니다!

대신 김치선 신학교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한 온라인 글로벌 스마트캠퍼스와 오프라인은 각 노회별 신학교 운영을 기준으로 구축하였 강의를 담당할 교수님과 대신 김치선 신학교를 관리할 이사님을 모집합니다.

**교수 및 이사모집 구비서류**

1. 학위증명(졸업증명)
2. 논문, 저서
3. 경력(교수 및 목회)
4. 강의 계획서
5. 교회명 및 지위
6. 희망과목
7. 이력서

연락처 / 문의 - dac1961@naver.com

저자 서사라(서상아)

1960년 출생  
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1980년 이화여대 의과대학 졸업, 의사면허(M.D.) 취득  
1989년 서울의대 의과대학 생리학사사무원  
1993년 미국 브라운대 의대 생활학 박사(Ph.D.) 취득  
1993년 ~ 1997년 미국 UCLA 의과대학 연구원생(Postdoctoral fellow)  
2004년 미국 발렛 신학대학 목회학 석사(M.Div.) 취득  
2004년 미국교단 Christian Churches(Disciples)에서 목사 안수 받음  
2004년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피아타운 소공동의 사랑교회 담임목사  
2009년 현재, LA 새사람 영성 훈련원장  
2015년 현재, 주님의 사랑 세계전교세미나 원장

저서 :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 제 1권, 제 2권 : 천국과 지옥 간증수기  
- 제 3권 (성경편) : 창세기  
- 제 4권 (성경편) : 모세편  
- 제 5권 (성경편) : 계사편 이해  
- 제 6권 : 지옥편  
- 제 7권 (성경편) : 하나님의 인  
- 제 8권 : 출간 예정

저자 연락처 (미국)  
T : 213-305-0000 E-mail : sarahseoh@ymail.com

하늘빛출판사

ISBN 979-11-87175-07-0

한글출판사

하늘빛출판사

협동시론

김호진

생명성교회 장로



5천년의 가난을 물리친 민족중흥에 피땀을 흘려서 세운 대한민국의 國運이 지금 衰하고 있습니다.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인고의 열정으로 세운 우리大韓民國을 우리 해방 1세대는 사막처럼 황량한 여건 속에서도 강한연대의식으로 굳게 뭉쳐 서로의 피와 땀을 밑거름 삼아 힘겹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머리카락 자르고, 쥐잡아 밍크털 만들고, 곰 인형 만들어 난생 처음 외국에 물건을 팔았다. 산골에서 들판에서, 풍랑치는 바다에서 허리가 휘도록 구슬땀을 흘려 보릿고개 넘기고, 구로공단에서 구미 공단에서 마산 울산 부산공단에서 누나들이 보내 준 돈으로 동생들 공부시켰다. '잘 살아 보세' 외치며 밤낮으로 서러운 눈물 입술 깨물며 견디어 온 이 땅의 우리 1세대 그리고 할머니 누이들.....!

어째서 지금 왜? 입을 다물고 말 못하고 계십니까? 광부로 간호사로 이국 만리 독일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월남에서,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기적을 만들어 낸 자랑스런 이 땅의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들! 어째서 지금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6.25 잿더미에서 미국이 보내 준 밀가루와 우유로 끼니 때우고 있을 때고 마운 줄 모르고 밤낮 권력 나눠먹기 싸움질로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린 그들은 누구였던가...? 독일 광부 간호사 형님 누나들 월급을 담보로 돈 빌려와 (좌관) 고속도로 만들 때, 논밭 갈아 엮는다고 순진한 농민들을 부추겨 길바다에 드러누워 갱판을 친 자들이 누구였던가 .....? 겨우 낫이나 망치를 만들던 대장간에서 일본 돈과 기술로 허허벌판에 포항 제철을 세울 때 한일 국교 반대를 외치며 학생들을 꼬드겨 갱판 치던 당시 야당지도자 그들은 누구였던가? 지금의 현상이 그때와 동일한 수법으로 똥인지 된장이지를 구별 못하는 젊은이들 부화뇌동의 휩쓸기 쉬운 귀가 얇은 젊은 세대들에게 오늘 촛불을 들게 했습니다. 한일 감정을 부추겨 민심을 교란하여 다음 선거에 이용하려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매관자본 물러가라, 독재정권 타도와 온갖 중상모략과 허위선전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지금의 정부입니다.

"大韓民國의 國運이 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란한 산업화를 일구어 낸, 이 땅의 위대한 산업역군들이여 .....? 우리 후대들 젊은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십시오. 라디오도 만들지 못하던 우리가 T.V 냉장고 자동차 조선 산업을 생산하여 수출할 때, 정치인과 학생들은 길거리에서 노동현장에서 민주화란 외치며 국가 발전에 뒷다리 잡은 이들이 누구인가? 건설 현장에서 반도체 통신 핸드폰 등

니 아버지 그리고 누나 형님들 누가 이 땅의 주인입니까? 주체사상에 휩쓸려 대모만 하던 그들이 주인입니까? 그도 아니면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북한 비호세력 들입니까? 결단코 다시 말합니다! 이땅의 주인은 김정은이도 민주화를 외치던 그들도 아닌 이 땅의 주인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몸은 자기 것이라도 생각은 남의 것이 되고 만다. 이와 같은 태도나 행동으로 변질 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광우병 난동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보는 눈이 의심 스러울 뿐이다. 정상적인 정부 교체가 아니라 변칙적인 정부가 탄생 된 점이 바로 이런 현상에서 온 것이다. 주관과 의지는 삶을 지켜주는 등불과 같은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빛이 필요 하듯이 이 혼란한 세대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솔선수범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종교계의 지도자 여러분! 강 건너 불이 붓고 있습니다.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외치십시오. 힘겹게 세운 이나라에서 제 2세대는 선대가 물려준 기를 위에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였지만, 안일과 풍요 속에서 처음의 연대의식을 점차 상실하고 권력투쟁의 내분으로 국가의 기반을 약화 시켰습니다. 그 후 제3세대에 이르면 선조들이 어떤 경계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지탱해 왔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난이 무엇이든 보릿고개가 어떤 것인지 풍요속에서 살다보니 우과와 좌과의 이념전쟁에 휩쓸려 주관과 의지 없이 행동하는 세대로 전락하고 나라의 국운이 쇠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맹목적인 인생으로 주체성이 결여된 이 제 3세대들에게 경고의 멧세지를 보내고

바른 길로 인도 합시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주관과 의지는 삶을 지켜주는 등불과 같은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빛이 필요하듯이 이 혼란한 세대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솔선수범 소금이 되고 빛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대한민국은 지금 120년 전 구한말 국망 상황입니다. 낡고 좌 편향된 국정이념이 온 사회를 파괴적인 국론분열과 갈등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는 암울 한데, 국가 비전과 전략은 실종 상태입니다. 혁명적 대전환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습니다. 새로운 대전환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백년지책을 경제방략을 가진 주체 세력이 나와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위국 현신의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국가 지도자를 잘못 선출 하므로써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고아와 같은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정말 놓쳐서는 안되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 나갑시다

자랑스런 이 땅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나 형님들 누가 이땅의 주인입니까?

주체사상에 휩쓸려 대모만 하던 그들이 주인입니까?

그도 아니면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북한 비호세력 들입니까?

결단코 다시 말합니다!

이땅의 주인은 김정은이도 민주화를 외치던 그들도 아닌

이 땅의 주인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계 1등 제품 만들어 수출할 때, 지금 386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단군께서 나라를 물려주신 이래 세계 10위 수출 강국과 세계12위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낸 자랑스런 이땅의 기업인과 수출산업 역군 여러분! 왜?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계십니까? 자랑스런 이땅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주관과 의지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특히 젊은 세대들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의지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행동하다 보면 주체성이 결여 됨은 물론, 삶의 가치관도 제대로 지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목회단상



신동원 목사  
별사랑교회 담임

아버지 마음 나는 품꾼입니다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웁니다.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들의 신분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라고 요청합니다(눅15:19-20). 아들과 품꾼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은 부모가 누리는 혜택과 도움을 받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좋은 음식과 더불어 삶의 풍요가 있습니다.

으로 된 줄로 착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보니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봅니다. 돼지들과 더럽게 살다 보니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요? 후회가 막심합니다. 아들에게 품꾼으로 내려오니 자기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다 보니 아버지 외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품꾼의 자제

코코이찌방야(‘이곳이 최고야의 뜻)가 있습니다. 나고야 인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과 해외 6개국 점포까지 합치면 매장이 1,333개에 이르고 연간 8,000만 명분의 카레를 판매합니다. 성공 비결은 창업자 무네쓰구 도쿠지 씨의 독특한 경영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을 내리면 우선 본사 직원으로 입사해 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981년 도입 이래 32년째 시행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사원으로 입사하면 제일 아래 단계인 9등급이 되고, 그 후에 점점 급수가 올라 갑니다. 처음엔 적정한 양으로 밥 푸기, 설거지부터 배웁니다. 4등급이 되면 점장 준비생이 되고, 3등급이 되면 자기 가게를 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시스템을 거쳐 창업하기까지는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자만과 높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자요, 미완성이요, 아무것도 아닌 품꾼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좋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며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인에 얽매어 살아야 하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더욱이 품꾼은 모든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입니다. 오늘 식으로 하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요,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입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내보낼 수 있는 파리 목숨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탕자는 굳이 품꾼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가 아들의 위치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더럽게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으로 창녀와 놀아났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품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부모의 은혜로 살아온 줄 모르고 자신의 힘과 능력

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지금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인정합니다. 치유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 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아들이 아닌 품꾼인 것을 발견할 때 힘림은 찾아옵니다. 아들이었을 때 자괴감에 빠져 자신이 더러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나 품꾼임을 고백할 때 더럽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자존감으로 바뀝니다. 품꾼임을 고백할 때 아버지께 돌아갈 용기와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품꾼임을 고백할 때 삶이 곧 행복이요, 감사입니다. 일본 최대 카레 전문점 프랜차이즈인 ‘

보통 가맹점을 내리면 6개월 정도면 총분한데 5년이라니. 이처럼 고된 훈련과 경험을 쌓은 뒤에야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힘을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카레의 독특한 맛을 내는 것뿐 아니라 고객을 최고의 선생으로 모시며 가게 전반의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꾼 정신이 아닐까요? 자신을 하를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만과 높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자요, 미완성이요, 아무것도 아닌 품꾼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납니다.

독일 하노버 소녀 합창단 내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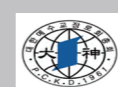
| 지난 9일입국 17일 출국

수원,용인, 경주, 통영 안양, 송파구 순회 공연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인 독일 하노버 소재 하노버 소녀합창단이 지난 10월 9일부터 17일까지 통영시의 6개 시군구를 방문했다. 하노버 소녀합창단은 1952년에 창단한 독일의 유서 깊은 합창단으로 1961년 첫 외국 공연이었던 덴마크 방문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통역 김종욱목사(원혜한독교회 담임)



대신교회협동신문

대표 최종환

발행인/편집인 강영철 인쇄인 이병동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영철

등록번호 경기, 다 50524 등록일 2016년 4월 19일

주소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149

전화 032-664-0153-4

후원 농협 355-0064-8056-93 대신교회협동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신간소개

요한계시록 핵심

저자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7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계시록 핵심 책은 저자의 다섯 번째 책 '계시록 이해'(총 822p)에서 계시록 요약편만 그대로 다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계시록의 핵심 주제들만 누구든지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저자가 천국을 왕래하면서 주님을 만나 계시록의 의문점들을 물어보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엮어 만든 책입니다.

[서론]

주님은 천상에서 나오 하야금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므로 말미

다시 쓰는 것이냐?' 고 아니다. 정말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성경을 읽을 때 내 자신이 궁금하였던 점들을 천상에서 주님께 물어보았을 뿐이다. 그리하였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것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계시록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어렵고 연결이 잘 안 될 뿐 아니라 계시록을 해석하는 자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계시록에 대하여 귀를 닫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성경만 읽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주님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그렇게 잘 풀리지 아니하던 계시록의 의문점들을 밝혀 주신 것이다. 이 일들은 천상에서 주로 주님과 요한

주님이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서로의 생각이 상대방에게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밝히고자 하는 것들을 내게 의문이 생기게 하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항상 늘 나에게 계시록이 이 내용은 이렇고 저 내용은 저렇고 이렇게 그분의 입으로 직접 설명하여 주신 것이 아님을 여기서 밝힌다. 주님은 천상에서 그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서 오히려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한 나에게 생각으로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셨다는 것이다. 물론 한 마디로 그렇다 이렇다하신 적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극소수였다. 대개는 나에게 의문점이 있을 때마다 생각으로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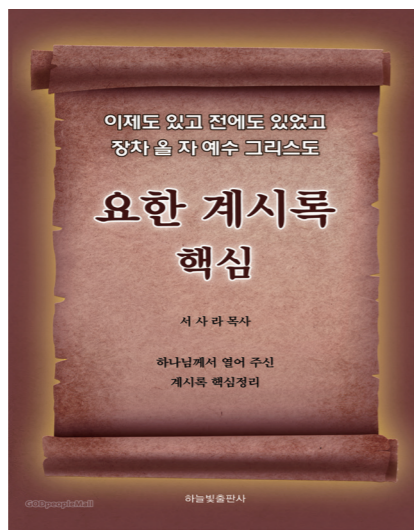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비하여 신부단장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정말 곧 오실 것이다.

- 01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 26
- 02 전 삼년반에 일어나는 일 30
- 03 전 삼년반의 두 증인 34
- 04 반시동안 고요한 때 41
- 05 계시록 12장 해석 44
- 06 대한난 전과 대한난 후에 일어나는 두 번의 휴거 54
- 07 첫째부활과 천년왕국 74
- 08 곡과 마곡전쟁 105
- 09 아말겔돈 전쟁 118
- 10 어린양의 혼인잔치 134
- 11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는 때 143
- 12 주님의 타작마당 162
- 13 백보좌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172
- 14 낙원과 천국 그리고 영원천국 188
- 15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가 가는 곳 (새 예루살렘 성안과 성밖) 204
- 16 왜 베리침이 성경에서 말하는 666인가? 226

가격: 12,000원,  
 전국 각 서점서 판매중,  
 출판사 하늘 빛  
 저자 서사라목사  
 ISBN 979-11-87175-07-0  
 연락처: 최성열목사 010-2284-3007



서사라 목사  
LA 주님의 사랑교회담임



암아 천국과 지옥 간증수기 1편과 2편을 쓰게 하였고 그 다음은 성경편으로 창세기편(천국과 지옥 간증수기 3)과 모세편(천국과 지옥 간증수기 4)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은 내가 사도 요한과 함께 계시록에 대하여 쓰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내가 주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성경편을 쓰기 시작하였더니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 '성경을

그리고 모세와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주님은 나에게 계시록에 대한 의문점들이 생각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의문점들에 대하여 생각으로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셨다. 물론 계시록의 내용에 대하여 내가 가진 의문점들이 다른 사람들이 갖는 의문점들과 다를 수는 있으나 그러나 많은 점들에 있어서 여러 동일한 의문점들이 풀리게 되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내가 천상에서 가지는 의문점들조차

현 시대를 보면서 성경의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말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하여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이상 계시록이 어렵다고 덮어두지 않기를 바라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것에

한장총 종교개혁일 502주년 기념메시지 발표

| 성경으로 돌아가야, 다음세대에 희망을 제시해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장총)은 10월 28일 한국교회의 종교개혁 기념주년을 기해 종교개혁일 502주년 기념메시지를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기독교인들은 한장총 기념메시지 전문을 게재한다. 다음은 전문이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로마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대학의 문에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백성들을 계몽하는 불꽃이 되어 중세 1,000년의 암흑기를 마감하고 근대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502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일을 기념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개혁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세대에 희망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마르틴 루터는 대중을 위한 교육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대중들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인 독어로 번역하여 보급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노래를 만들어 찬송가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어려운 철학, 의학 등의 학문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직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교육활동을 통하여 공교육의 아버지란 평가를 받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대중을 계몽하고 중세를 끝내고 새로운 근대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래세대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왜곡된 개혁의 대상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열성적인 교육으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육을 통하여 부흥하여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502주년을 맞으면서 한국교회는 미래세대 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2019. 10. 28.

추수감사절, 장애인과 함께 걷기

| 지난 10월 21일(월) 오전 11시 남양주시 사랑나눔에서 | 주최 -교회협동신문, 주관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 장애인 걷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제1회 장애인들과 함께 걷기와 희망찬 노래를"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행사는 교회협동신문, 남양주시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이웃사랑나눔회, 경기일보, 천마예술단이 후원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남양주경찰서와 남양주시헌병봉사단에서 걷기행사의 교통통제 및 진행을 도왔다.

제1부는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한수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행

사는 유낙준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등 내빈소개와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어 장애인과 함께 걷는 시간은 장애인 200명 내빈 스텝50명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걷기 및 위로회(이마트 돌아오기) 등으로 진행 되었고 행진의 진행은 강영철 목사가 담당하고 외부인사 및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등 걷기를 함께 했으며, 경찰과 헌병봉사대, 청년도우미 들도 함께 했다.

특별히 이 행사의 목적은 추수감사절

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을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우신 은혜로우신 장애를 가진 이들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의 아픔과 연약함을 위로하고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기회의 장이 되어 당신들 곁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 살아갈 이유와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행사를 준비한 교회협동신문 대표 김한수목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제1회 장애인들과 함께 걷기와 희망찬 노래를 행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걷기 대회'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을 바꾸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교회협동신문 강영철기자

43년 목회를 은퇴하시고 경북 봉화군 춘양면 감동골에서 2014년부터 귀촌하여 사과농업교육을 마치고 사과 수확 3년차를 맞이하였다. 금년 큰 기대감을 품고 수확할날만 기다리시던 대신총회 제46회 총회장 강경원목사님 부부는 요즘 큰 시련을 당하셨다.

지난번 한반도를 강타한 10월 3일 제18호 태풍 미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2천여 평의 사과과수원의 1천여주

태풍피해를 입은 목사님을 도웁시다.

| 18호 태풍 미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과수농사 영망, 도움의 손길 절실

의 사과 나무중 1백여 그루가 쓰러지고 뿌리가 뽑히고 부러졌다. 곧 상풍으로 나갈 다 자란 사과들이 바람에 낙과하여 20kg상자로 100여 상자

를 눈물과 땀으로 일군 것들을 피해를 보았다. 그래도 하나님께 아직도 남은 것이 있어 감사하시며 증경총회장 강경원목

사님부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땀으로 뒤통이 되신 모습을 하시며 촬영에 임해주셨다.

이 글을 읽는 교회와 목사님들께서 작은 힘을 보태어 주신다면 은퇴이후에 사과농사가 목회와 똑같다며 애정을 쏟으시며 제2의 인생과 지역섬김과 선교에 앞장서시는 목사님부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리라 믿어 본다.

아삭이 사과농원연락처 010 6356 9296 강경원 목사

최종환 기자



▲ 강경원목사 부부(좌), 피해과수 현장(우)



특별기고

이인수목사 칼럼



이인수 목사 (전)은누리수련원장

‘외계에도 생명체가 존재하며 우주 도처에 지성적 문명세계가 있을 거라 보는 우주과학자들 주장에 사실로 존재한다면

성경은 말짱 거짓이라며 기독교는 대혼란에 처할 거라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계 우주과학자들은 우주 탐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엔 화성에서 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카네기학회 전문가들의 발표에 의하면 우주의 물레는 있을 것이지만 너무나 광활해서 우주의 직경을 대략 잡아 약 400억 광년(光年)으로 추산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즉, 태양이 속해있는 우주를 은하수라고 부르는데 그 직경은 무려 10만 광년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한 속에는 적어도 일천여개의 별들이 꼭 차있는 섬나라 우주적으로서 큰 바다에 떠있는 한줌의 해초에 불과하며 그 속에 지구의 존재란 한 알의 쯤쌀보다도 못하다 하여 불교계에서는 이를 말해 지구를 속산국(粟散國) 즉, 쯤쌀 한 알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같이 은하계가 대우주 안에는 일천여개의 별들이 있다는 셈인데 이런 별들은 태양과 마찬가지로 빛을 발휘하는 별들이라고 한다. 우리 인류는 우주가 이러한데도 우주

안에서 유일한 또는 특별한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 인간만이 선택받은 최고의 생명체인줄로 자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대우주 안에는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흑성(黑星)이 많은 태양계에도 있고 이를 흑성 안에도 지구와 비슷한 세월을 경과하고 나면 그곳을 지배하는 물리법칙이 꼭 같은 것이므로 거기에도 우리 인류와 같은 문명을 가진 고등생물(宇宙人)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우주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1)과학자들의 이 같은 주장엔 지난 1984년 8월, 운석에서 5가지의 화학물질이 발견됐다면 이는 우주 도처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이론을 증명한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또한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시릴 박사도 이 같은 발견은 생명체의 화학적 진화 이론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제 우리 인류가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사람이 외계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E.T.(우주인)은 외계에서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이라고 한다. E.T가 타고 왔다고 U.F.O는 21세기 인류의 관심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 국립 과학원 천문학 위원회는 외계의 생물체가 존재하며 우주 여러 곳에는 지성적 문명세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 미 항공 우주국에서도 E.T 탐색으로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본격적으로 외계 문명의 탐색에 나서고 있다 한다. 이 프로젝트의 회담 담당자인 존 빌립 얼 씨는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電波)들이 지금 현재도 지구에 도달하고 있다 한다. 그러므로 이를 검색하는 정당한 시스템을 개발되면 앞으로 이들의 전파를 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을 표명한다고 한다. (3)전파(Telepathy) 구소련의 초심리학자 라프노프는 전파의 파동도 전파속도는 1초 동안에 약 63억 1천 7백만 광년(光年)의 거리를 전파해 간다고 한다. 그러면 은하계 우주에서 태양계 우주까지의 거리는 약 3만 광년(光年)이라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영감, 예감, 영몽, 계시 등은 모두가 전

"우주 도처에 생명체 존재론"

파의 파동으로 집적된다면서 이러한 속도라면 U.F.O가 우주에서 지구까지 충분히 왕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이들도 있다. (4)이상한 형체인 정체불명의 비행체 추적 구소련의 오르키아 공화국에 드빌러시와 에스토니아의 모험담을 1985년 1월 30일자의 소련 신문들이 보도함으로써 세인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이 여객기의 승무원들은 강력한 빛을 발휘하는 비행기가 1시간 이상 여객기를 따라왔으며 행체가 두 차례나 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정체불명의 비행기는 구소련의 3개 공방 관제탑에서도 추적 관찰해 포착되었다 한다. 소련 당국은 벌써부터 이러한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하며 이미 1984년 2월 비정상현상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같은 증인들을 접수 검토하여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한다. 이러한 현상을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4-14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이 사방에 비추어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모양이 사람의 형상이라 변해가 나며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성경 말씀에서 써 보면, 1. 태초에 천지창조란 지구보다 먼저 지은 창조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한 이 태초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가 아니다. 태초의 천지 창조는 피조개의 기반인 천지로서 시간과 공간이 되는 창조(創出)되는 터전이다. 그 터전을 기반으로 첫째날 빛(陽)과 어둠(陰)을 지으시고(창1:3-5) 둘째날에 공중하늘을 지으시고 공중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갈라 놓으셨다(창1:8). 그리고 창조 제 3일에는 하늘의 물에서 바다와 땅 즉, 지구를 지으셨다(창1:9-13). 바로 이 셋째날에 지으신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이다. 그러니까 지구를 짓기 이전의 태초가 있었고 그 다음 첫째날 창조도 있고 둘째날 창조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태초 천지창조 이전의 세계란 시공(時空)을

초월한 천지개벽 이전인 영원 전의 세계를 말한다.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는 무(無)의 세계였고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神)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1:1-2). 곧, 천지개벽 이전 상태로써 천지가 현상하고 우주가 흥왕하여 질서가 잡히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 때를 곧, 태초라 한다. 시간의 시작이다. 즉, 한알에, 한울이 형성된 것이다. 시공계(時空界)의 울은 그 울의 선상을 수면이라 했다. 수면선상 즉, 공(空)의 선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에 계신다. 시간 안에 계신이 아니다. 우와 무의 분기점이 되는 울의 선상에서 창조과정을 운행하셨다(창1:2). 그 울안이 곧,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는 데에 기반이 된 것이다. 그 기반을 터전으로 해서 첫째날 창조부터 계속적 창조가 있었다. (1)지구의 연조 창조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성경의 계보를 함축한 산출근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할 때가 기원전 4246년에 해당되며 즉, 지금으로부터 약 6000여년 전의 일이라는 것이다. 기원전 4000년경인 이때가 인류 대이동이 있었다는 역사가들의 증거가 성경 상으로 본 에덴동산에서 아담 일행이 추방당했던 그때의 연조와 상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에 에덴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다같이 이주되었고 에덴은 출입금지 영역으로 구별되고 화염림을 두어 지키게 했다고 했다(창3:24). 이렇게 에덴을 봉쇄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6~7천년이라고 한 것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이다. (2)지구 창조 6일이란, 지구를 6일에 창조했다고 한 하루는 지금의 하루와 같은 하루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의 하루는 24시간을 하루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창조 하루란 시간을 초월한 하루로서 어떤 일의 창조과정의 시작부터 그 일이 끝나기까지의 무한한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이를 하루라고 계산했을 뿐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에선 천년이 하루같고 하루가 천년같다 했다.) 창조 넷째

날에서야 해와 달과 별을 지었거든 그 이전에 24시간의 하루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넷째날 이후부터의 24시간인 하루라고 했겠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지금의 24시간인 하루는 아담이 타락 후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게 되면서부터의 하루이다. 역서(曆書)도 아담 타락으로부터 5년 후야 애굽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다. (3)하늘에는 한울도 많고 하나님의 아들들(生靈人)도 많았다. 성경 창세기1:26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한 이 말에서 '우리가' 라는 말이 3번이나 있는데 이 '우리'란, 누구들과의 의논이었는가.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三位)께서 마주 앉아 우리라고 했다면 이는 삼위삼체(三位一體)가 되는데 왜 삼위일체라고 하는지 마음이 개운치 않은 해석이라고 한 많은 신학자들의 의문이었다. 이에 대해 어느 목사의 답변은 삼위삼체이지만은 1체다. 부부2체이지만 1체라는 뜻과 같다고 말한다. 그것은 완전한 3위 3체설이라는 말이 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심이 분명하다.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와 줄기와 진액의 삼부인이 합하여 한 나무인 것 같이 뿌리가 성부요, 줄기가 성자요, 진액이 성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삼위일체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혼자 계시어서 우리라는 복수용어를 쓰셨는가 문제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지으실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욥38:7). 이처럼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참관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의논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이라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오인하기가 쉽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이신고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빌2:6) 삼위일체의 1위인고로 천국에서도 독생자이시니와 땅에서도 성령으로 임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고로 하나님의 독생자임이 분명하다(눅1:35, 고후4:4). 만일 이를 부정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사비

이단자일 것이다. 하늘에는 한울도 많거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들도 많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영(靈)이시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들이란 혈육의 아들들이 아닌 생령인(生靈人)으로 지음받은 아들들로 모든 한울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 먼저 지으시고 거기에도 지구의 아담을 장자(長子)로 지으시듯이 모든 한울에도 첫사람으로 지음받은 아들들이 그곳에 장자들이다.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도 그곳에 있다(히12:33)했으니 이들은 사망과(死亡果)를 먹지 않은 생령인들이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들로서 생육번성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구를 지으실 때도 그들이 나와서 기뻐하며 소리했다고(욥38:7)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데에 대해, 이는 천사를 의미함이라고 우겨대는 이들도 있다. 그것은 성경 주석에서도, 주(註)에도 천사라고 해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위 있는 신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라면서 성경 히브리서 1:5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한 일이 없으시다고 진히 증거하지 않았는가. 천사는 천사이고, 아들은 아들일 뿐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해석들도 있으나, 지면 사정상 좀 더 구체적 설명이 불가했던 아쉬움에 이해를 구하면서 끝으로 앞서 서두에서 우주 도처에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할 시엔 성경엔 말짱 거짓이라며 이로 인해 기독교가 대혼란에 처할 거라 함은 성경을 잘못 오인이나 착각한 것이다. 성경은 하늘에는 한울도 많거나 하나님의 아들들도 많다고 했으니 기독교는 영원불변함을 의심 없이 믿길 바란다.

구역예배 공과

불가지론

개혁주의적 이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불가지론과 혼동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긴다는 말이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거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불가지론, 곧 인간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논리,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으로 묻고 가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흔하게 하나님에 하신다는 말을 던져놓고는 어떤 책임도 어떤 손해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이해를 만들어 놓는다 겉으로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성실함과 불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앙은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논리로 덮고 쉽게 가려는 내용들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의 본질을 덮어 안고 있다는 이해에 관한 일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존재가 불가능하다. 개혁주의의

안에서 하나님에 맡긴다는 말은 불가지론이나 값싼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로 그 세월, 그 시간들 마음대로 안되는 자기 현실, 부족과 결핍이 상황이 된 그 내용을 견디고 감수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자기안으로 끌어들이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으로 방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부족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이해한다 신앙의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책임을 떠넘기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닌 그 세월을 동참하고 감수하는 것으로 깊어진다 인듯 보기에는 무력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에 절대 기준이 되어 존재와 본질을 채워가는 것이다 인간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성경: 전도서 3장 11-13절 찬송: 438장 핵심단어: 불가지론, 책임, 형상 토의 1. 불가지론이 무엇인가 2.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3. 신앙의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정리 : 하나님에게 우리의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닌 동참하는 자로서 내용과 그 안에 풍성함을 이해해야 한다

믿음

하나의 조건과 원인이 되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믿음은 처음부터 다른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모든 행위적 원인의 대표성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는 모든 조건으로서 내용을 가진다 믿음이 결과를 위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다면 믿음과 율법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그 자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과 능력을 기초로 한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결과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을 설명 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 한 개인을 영웅으로 만드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으로 설명되면 안된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되는 방식,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의로서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 곧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되어 하신다는 것의 대표성으로 아브라함이다 율법과 전혀 다른 믿음의 방식이다. 인간을 원인으로 삼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부정해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원인이 된 믿음을 내용으로 가져야 한다 믿음은 또 다른 율법적 수고가 아니라 믿어야 하는데 안 믿어지는 자신을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로서 더 깊은 본질적 자유함을 얻으라 정의와 성화에 대한 불안한 이해가 인간을 더 고달프게 한다 정의에 연연하기 보다는 성화, 더 깊은 하나님의 요구로 나아가는 정의로 자신을 이해하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이다 성경: 로마서 5장 8-11절 찬송 301장 핵심단어: 믿음, 방식, 정의와 성화 토의 1. 믿음은 율법적 행위인가 2. 인간은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말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3.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정리 :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내용을 담을 만큼 자라기를 원하신다

현실

인위적으로 혹은 다른 작음을 해서 만족스런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 내가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 그 내용, 곧 하나님의 존재적 내용을 풍성하게 아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무엇을 하는 것으로,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성경과는 다른 이해이며 목적에서 이미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 하신다. 성도됨과 교회의 정체성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 무엇을 해서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존재로서 스스로의 내용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굳이 무엇을 하려는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세상의 목적, 자기 만족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증명하려는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스스로

있는 자의 태함과 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다. 존재의 풍성함은 무엇을 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닌 이미 택자로서 획득된 은혜다. 이미 존재된 하나님의 내용을 현실 속에서 깊이 채우라 최고의 가치는 예수 믿는 것이고 최고의 실현은 그 예수를 닮아 가는 것이다 가치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 이미 존재하는 가치를 스스로 가치였노라고 인정하는 자발적 성취를 바로 그 현실이라는 현장에서 채워가야 한다 매일 매일 만나는 인간의 연약함, 현실은 은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이다 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 찬송 32장 핵심단어: 만족, 정체성, 가치 토의 1. 만족은 무엇이고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2. 정체성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3. 현실에서의 만족을 은혜로 이해해 보자 정리 : 만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다 현실은 그런 의미에서 만족이다

[김두현 목사의 이것이 목회본질이다]

# ‘교회 성장’이란 우물에서 나와 ‘교회다움’을 성찰할 때

21C 목회연구소장 김두현목사의 이것이 목회본질이라는 제목으로 16회 연재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김두현 목사  
21C목회연구소 소장,  
월간 아름다운사람 대표



▲ 김두현 21C목회연구소장이 지난 10월 경기도 용인 세에덴교회에서 열린 ‘2020목회계획 컨퍼런스’에서 한국교회 미래목회를 전망하고 있다.

21C목회연구소가 세워진 지 만 20년이 됐다. 연구소를 이끌면서 마음에 항상 품은 것은 비전과 희망이다. 연구소를 시작할 무렵 한국교회는 서서히 쇠퇴기에 접어드는 초기였기 때문에 스스로 부담감을 갖게 됐다. 특히 21세기라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광야를 향한다는 것이 마치 철의 장막 앞에 서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개인적으로 2019년 지금보다 1999년 연구소를 시작할 때가 목회 열정이 더 강렬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21C목회연구소 첫 세미나는 당시 가장 활발한 기독교 모임의 중심지였던 서울 양재동 햇빛회관에서 했다. 홍보나 광고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350여명의 목회자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 열기를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많은 목회자가 후속 모임을 시작하자고 요청해 1기 목회 클래스가 그다음 주에 바로 시작됐다.

비좁은 경기도 성남의 연구소 지하 강 의실은 앉을 자리가 없게 꽉 들어찼다.

2~3년이 지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반씩 10개 모임으로 발전했다.

한 반에 목사만 100명이 될 정도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오늘날 매주 목회를 위해 700~800명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능할까. 순수하게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기 위한 세미나, 혹은 콘퍼런스에 전국적으로 평균 200~300명의 목회자를 모을 수 있을까. 현장에서 20년 넘도록 목회자 전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최근 2~3년간 이처럼 극도로 목회 열정을 상실한 목회자들을 경험한 적이 없다.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의 전성기인 1970년에서 2000년 사이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대부분은 아직도 21세기 이전 상태에 있다.

결국 목회자들의 의식과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예배와 설교, 기도와 프로그램에서 교회마다 약간 차이가 보인다면 타이틀이

나 이벤트의 용어가 다를 뿐 형식이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현대 교회와 사람들은 21세기의 20년을 보냈다. 얼마 후면 2020년이 다가온다. 한 세기의 5분의 1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총체적으로 성장(growth)이란 울무를 벗지 못하고 있다.

사람 숫자, 건물, 예산, 사업, 프로그램, 행사라는 양적 집착에서 모든 것을 빠르게 만드는 질적 가치로 전환해야 하는데 아직도 90년대 목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갈 길이 먼데 대부분의 교회가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교회마다 주요한 지표들이 말해주듯 ‘3저 3고’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출석수 감소, 새신자 감소, 재정 감소는 점점 동력 약화의 길로 가고 있다. 교회이탈자 증가, 고령화 증가, 일하지 않는 직분자 증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의 생존마저 위협할 상황이 됐다.

목회연구소를 시작할 때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에 치중하지 않기 위해 스쿨링 시스템(schooling system)을 도입

했다. 세미나 중심이 아닌 탐구 중심으로 1~3년 코스로 매주 목회자들이 모여 직접 목회방안을 고민하고 탐구하고 나누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당시는 한국교회에 마치 유행처럼 세미나 열풍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다. 몇몇 세미나는 목회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너도나도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마치 현대 목회인 양 받아들이며 목회 돌파구로 여기던 시절이었다.

목회에는 물론 아이디어나 정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일례로 미국 수정교회의 로버트 슬러 목사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목회자로 추앙 받았다. 방송뿐 아니라 수십 권의 자기계발 저서, 적극적 사고방식 이론과 화려한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교회를 매료시켰다. 그의 설교 프로그램인 ‘권능의 시간’(Hour of Power)은 무려 130만명이 시청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20세기와 함께 그 이름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회는 본질이 중요하고 목회는 정체성이 중요하다. 교회의 방향성은 방법론과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교회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20년 동안 목사들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연구소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탐구하고 나누는 것이다.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마 16:18)를 깊이 인식하고 탐구하는 시간이다. 지금은 이것저것 목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찾은 때가 아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진지하게 자신의 시간과 몸을 바쳐야 할 시간이다.

김두현 목사 약력=침례신학대 졸업, 영국 엑스터대 교육학 박사과정 수료, 현 21C목회연구소 소장, 월간 아름다운사람 대표

사설 2020년

# 목회를 준비하자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미국교회는 지금 교회 플랜팅church planting에 대해 많은 모임과 사역을 하고 있다. 한때는 미국교회의 흐름을 무분별하게 유행처럼 받아 들이던 때도 있었다. 그로인하여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부작용사례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에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목사 그룹이나 단체나 모임이 안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경우는 21C를 예측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20년 동안 탁월하게 교회를 세우는 플랜팅 목사의 그룹이 주도적으로 형성network 되었고 이제는 1.5플랜팅 세대planting generation까지 증식되어 미국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 한국교회는 시작도 하지 않고 있으며 너무나 조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교회를 넘어 한국교회의 미래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교회가 없다면 목사가 왜 필요하겠는가?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church planting을 많이 알리고 해야하며 연구도하고 검증된 것을 나누고 교회에 적용해야 미래 한국교회의 존재이유와 건강성을 유지 할 수 있다. church planting의 최종적 목적은 ‘Acts29 교회 네트워크’까지 발전하고 연결되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하나로 연결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플랜팅의 언어lexicon of church planting & 교회 플랜팅 여정itinerary에 참여하여 성경적 교회biblical church/증식교회multiplication church/미래교회future church를 세워가는 것을 교단과 노회 그리고 개 교회들이 빨리 알고 새로운 미래교회 청사진들이 나와서 역동적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생산적 구조로 미래교회를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

‘교회’the church, 누구에게는 별것 아니고 누구에게는 전부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비밀 자체이다(엡 5:25).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교회를 보여주셨고 다지인하셨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위한 의식과 소명은 슬프리만큼 멀어져 가고 있다. 나는 반드시 목사에게 질문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다지인 하신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가?’라는 한마디이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처치 플랜팅church planting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가? 그동안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의 어색함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다시한번 내가 사역하는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위한 준비와 훈련 그리고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J. D. 그리어Greear 목사는 간곡하게 말할 개인에 대해서든 교회와 사역 단체에 대해서든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단이 아닌 제단으로 먼저 부르신다고 했다. 제임스 맥도널드James McDonald 목사는 우리는 그러지 말자. 교회에서 주인공인 하나님을 기억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중심에 모셔서 그분을 선포하고 예배하며 그분께 기도하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한다. 다시금 하나님을 교회의 얼굴로 내세우자. 교회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요, 그분의 위대한 독생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자라고 말했다. 팀 켈러Timothy Keller 목사는 설교가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강하게 끌리는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영화 영상을 보여 주거나, 옷을 편하게 입거나, 세련되게 설교하기 때문이 아니다. 대신 설교자들이 그들의 마음과 문화를 잘 이해한다면 청중은 비록 설교의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교의 논리 전개에는 강하게 공감할 것이다. 이것은 스타일이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다. 몇 년간 컨퍼런스를 하며, 리더며교회가 열매 맺는 비결이 어떤 목회 프로그램을 사용했느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처치 플랜팅 목회를 하고 있는 리더 목사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세우는데 전념하며 오직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다른 일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했다. 이제는 진실로 교회로 모두가 돌아와야 한다. 더 이상 교회 방향을 끝내고 무조건 처치 플랜팅에 몰두해야 한다. 정말 미래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자신은 물론 교회를 위하여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10월은 다음해 교회사역을 준비하고 목사들은 목회계획을 세우는 달이다. 다시한번 자신과 현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진리의 터위에 세워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흔들려도 요동치지 않는 교회세우는 작업을 시작해보자. 한국교회와 개교회의 미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인식하는 10월이 되기를 바란다.

## 목회단상

### 노인의 가르침



김경목 목사  
포천교회협동신문이사

한청년이 배낭을 메고서 깊은 산속으로 등산을 갔다. 그런데 그만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여기가 어디지? 길을 찾을 수가 없구나.”

청년은 겁이 덜컥 났다. 다급해진 마음으로 산을 내려가기 위해 아래로 계속 내려갔다. 그러다 천신만고 끝에 숲속에서 외딴 집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있었다.

“실례합니다. 길을 잃고 말았어요. 도와주세요.”

“어쩌다 길을 잃어버렸소. 조심하지 않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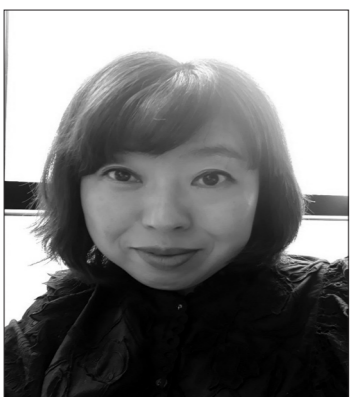
그런데 그 때 노인은 청년에게 잊

을 수 없는 교훈을 한 가지 전해주었다. “여보게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경우에 그저 아래로 내려가면 사는 줄 알고 아래로 내려간대,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죽는 길이라네. 산 속에서 길을 잃게되면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야지 살 수 있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나서 방향을 잘 정해 나가야지 살 수 있네!”

내려가야 사는 것이 아니고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할 때에 세상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살 수 없다. 그럴수록 우리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이런교훈을 주신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 이진숙 시



### 이진숙 시인

#### 가을

잎만 무성하다가  
어느새 초록색 열매가  
봉숭아빛으로 익어갈 무렵  
가을은 이미 와 있다  
질은 햇살에 영글어가는  
부드러운 단맛이  
입안 가득 녹아들 때  
가을도 깊어간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산마다 번지고  
땅을 덮는 낙엽들이  
서로 부딪으며 내는  
발자국 소리 쓸쓸해지면  
가을은 떠나려 한다  
그래도 그 가을 속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한 컷의 추억을 남기고  
슬픈 이별조차 아름다운  
이 가을에  
또 다른 사랑  
향기나는 기도로  
두 손을 모으며  
하늘을 지그시 바라본다

#### 고난이 배움이다

입으로 외우고  
머리로만 알고 있던  
말씀의 씨앗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불행과 난관 앞에서  
다 지워져 버린다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울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건만  
번개 한 번 치고 나니  
그대로 박살이 난다  
그제서야 내 안에서 들리는  
정직한 목소리를 듣고  
적나라한 나를 보고  
나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다  
말씀과 벗박자로 살고 있는  
화려한 몸치장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무릎을 꿇는다  
한 구절 한 구절  
주사바늘처럼 찌러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항하며 대드는  
나와 싸우며 통회하며  
지난 날의 나와 결별을 선언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총교회 | 은총교회 서해수양관

## 서해 은총수양관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눈 앞에 그림 같이 펼쳐진 서해대교가 보이는 곳,  
지친 삶의 소망과 영적인 안식, 마음과 육신의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서해 은총수양관은 각종 복지지역과 동해 지역을 섬기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이들의 영적 쉼터가 되겠습니다.



정종진목사  
은총교회 담임  
전)29대수도노회장



은총교회 :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33가길 10 TEL 02-2698-2780  
서해은총수양관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해변길 97 TEL 041-363-3610